

One pick

오늘 뭐 입지?



신혜선 가을 트렌치코트의 정석 정호연 ‘히피 스타일’ 매력 만점

가을이 오나 했더니 어느 새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갑자기 훅 떨어진 기온과 날씨는 일교차로 아침마다 어떤 겹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에 빠지기 십상이다. 지금이 바로 재빨리 트렌치코트를 꺼낼 순간이다. 아니면 내년 에나 입게 될지도 모르니 말이다.

‘찰나’의 순간이라도 가을의 분위기를 만끽하기 위해 스타들이 선택한 아이템도 트렌치코트다. 연기자 신혜선은 갈색 트렌치코트에 롱부츠를 매치해 간절기 패션의 정석을 선보였다. SBS 드라마 ‘윈더우먼’의 이하늬는 독특한 재질의 트렌치코트로 톡톡 튀는 개성을 살렸다. 겹옷에 포인트를 준 스타일은 따라하기도 쉽고 차별한 매력이 돋보여 ‘오피스룩’으로도 제격이다.

최근 ‘오징어게임’으로 세계적인 SNS 스타로 거듭난 정호연은 기장이 비교적 짧은 하프(쇼트) 트렌치코트를 입었다. 부스스한 펌 헤어스타일에 청바지를 받쳐 입어 히피 스타일을 완성했다. 하프 트렌치코트를 무심하게 톡 걸치면 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스러운 매력을 뽐낼 수 있다. 활동하기에도 좋다. 요즘 같은 날씨에 여행지에서 입기에 ‘딱’이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

앨리스·홍천기·아이돌·더콰이츠·드라마 대세로 뜬 광시양

“이정재 선배 떠올리는 연기? 제가 감히…”

‘홍천기’서 주향대군 광기어린 열연
‘관상’ 이정재 카리스마 연상 호평
“실제 성격요? 정반대죠 동네 바보!
언젠가 코미디…망가질 자신 있죠”

연기자 광시양(34)은 요즘 “과거와 미래, 현재를 오가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다. 자유자재로 시간을 이동해 날아간 미래(SBS ‘앨리스’)와 도포 자락을 휘날리는 조선시대(SBS ‘홍천기’)를 거쳐 정장을 차려입은 현재(JTBC ‘아이돌:더 콰이츠’)까지. 지난해 가을부터 최근까지 그가 내놓은 드라마를 나열하면 한 편의 ‘타임워프’(시간여행) 소재 영화 한 편을 똑딱 완성할 수 있을 만하다.

시대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행보는 최근 일만은 아니다. 2014년 영화 ‘야간비행’으로 데뷔해 그동안 사극, 시대물, SF 등 안방극장에서 보기 드문 장르의 작품을 꾸준히 소화해왔다. 27일 온라인 화상으로 만난 그는 “원래 해보고 싶은 것이 많은 성격”이라며 수줍게 웃었지만, “광시양이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하는 말을 듣고 싶기도 하다”며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이정재 선배는 범접할 수 없죠”

26일 종영한 ‘홍천기’에서 그는 수양대군을 모티브로 한 주향대군을 맡았다. 극중 동생인 공명과 왕권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광기 어린 연기를 펼쳐 ‘재발견’의 기회를 얻었다. 주인공인 화공 김유정과 별자리를 읽는 안호섭의 목숨을 위협하는 강렬한 악역이기도 했다.

“호평이 정말 많았다고 해주시니 부끄러워요. 다만 그동안 원해왔던 역할을



26일 막을 내린 SBS 드라마 ‘홍천기’에서 악역으로 등장한 연기자 광시양은 “다양한 욕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악역의 매력”이라면서 “시청자들의 ‘무섭다’는 반응에 내심 기뻐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드로잉엔터테인먼트

할 수 있어 어느 때보다 만족스러워요. 앞서 많은 선배들이 수양대군 캐릭터를 훌륭하게 연기하셨기 때문에 특히 부담이 됐는데, 무사히 마쳐 마음이 놓여요.”

시청자 사이에서는 2013년 영화 ‘관

상’에서 수양대군 캐릭터로 카리스마를 뽐낸 이정재를 떠올리게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광시양은 손사래를 치며 “감히 이정재 선배와 비교할 수가!”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정재 선배를 어떻게 따라잡니까.

다만 사람은 제각기 다르니 나름대로 저만의 개성을 드러내보자 다짐했죠. 의상부터 눈빛까지 많이 고민하며 준비했어요. 요즘에는 더욱 더 이정재 선배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 멋지게 표현해내시는, 진짜 멋진 연기자 같아요.”

●“실제 모습? ‘동네 바보’”

그는 쉬지 않고 이내 11월8일 ‘아이돌:더 콰이츠’로 시청자를 다시 만난다. 아이돌 그룹의 냉철한 소속사 사장 역할이다. 이처럼 드라마와 영화에서는 날카롭고 차분한 이미지를 주로 선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상반된 성격”이다. 광시양은 “저의 일상을 보시면 아마 ‘깼’ 수도 있다”며 웃었다.

“별명이 ‘동바’예요. ‘동네 바보’의 줄임말이죠. 하하하! 촬영 없을 땐 오로지 집에만 있어요. 맛있는 음식 요리해먹고, 유튜브와 밀린 대본 보면서 시간 보내는 게 낙이에요. 혼자 있을 땐 래퍼들의 랩을 열심히 따라 해요. 혀의 근육이 풀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 모습이 좀 웃길 것 같죠? 사실 남 웃기는 데 좀 욕심이 있거든요.”

유난히 연이 없는 코미디를 “꼭 하고 싶은 장르”로 꼽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철저하게 망가질 자신이 있다”며 의욕을 드러내고는 “한 이미지에 갇히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연기를 정말 즐겁게 하고 있고, 제 직업을 사랑해요. 그러다보니 더 재미있는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장르나 캐릭터 변화에 겁 없이 도전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아이돌 오디션’프로 부진…‘방과후’가 뒤집을까?

‘걸스플래닛999’ ‘…야생돌’ 외면
빌보드 도전 ‘방과후 셀렘’ 기대

아이돌 오디션. 그동안 방송가의 인기 아이템으로 사랑받아온 소재이다. 하지만 최근 시청자들의 시선을 제대로 끌지 못하고 있다. 각 방송사가 기존의 오디션 틀에 새로움을 엮는 변화를 시도하면서 또 하나

의 막을 열었지만 좀처럼 반응이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종영한 엠넷 ‘걸스플래닛999:소녀대전’은 한·중·일 걸그룹 데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방송 전부터 전 세계 케이팝 팬들의 관심을 얻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23일 마지막 방송에서 0.87%의 시청률(비지상파 수도권 유료가구 기준·닐슨코리아)로 초라하게 끝났다.

다만 클립 영상이나 출연자 등이 화제를 모으면서 걸그룹 탄생 과정까지 관심이 되살아나지 않겠느냐는 기대 섞인 전망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마지막 회까지 최고 시청률이 1.69%에 그치면서 결국 아쉬움 속에 막을 내렸다.

현재 방송 중인 MBC ‘극한대위 야생돌’도 마찬가지다. 아이돌과 서바이벌을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기존 오디션과는 달리 야생에서 펼쳐지는 지원자들의 생존 과정을 지켜보는 형식이다. 실력보다는 성장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 이 같은 차별화에도 평균

시청률 1%대로 경쟁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저조한 시청률을 나타내고 있다.

관심은 11월 방송 예정인 MBC ‘방과후 셀렘’으로 옮겨 붙는다. 데뷔와 동시에 빌보드 차트에 도전할 글로벌 걸그룹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일찌감치 화제물이에 나서며 색다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엄마들의 BTS’로 통하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연습생들의 심리를 돌보는 과정을 담은 프리퀀 버전 ‘등교전 망설임’을 네이버 나우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모 반목 폴라 티셔츠, 따뜻하게 올 겨울 준비 끝!
후끈후끈 반목티 4장 모두 49,800원

100% 국내산 기모 안감 기술을 사용해
부드러운 착용감과 보온성이 탁월



그레이 와인 네이비 검정

보온성·방풍성·실용성·패션성을 겸비한 반목 폴라 기모 티셔츠는 겨울철 추위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안성맞춤이다. 보온성이 탁월한 기모 안감 기술을 입힌 겨울용 반목 폴라 티셔츠는 겨울철 일상생활이나 등산·낚시·골프·사이클·스포츠 레저 활동시 적합한 제품으로 입는 순간부터 난로를 품고 다니는 듯 한 놀라운 차이를 온몸으로 느낄 것이다. 제품의 자신감으로 7일 이내 불만족 시 100% 교환·환불을 보장한다.

사이즈 95, 100, 105, 110 티셔츠 4장 세트 ₩49,800 (택배비 3,000원 구매자 부담)

www.style49.com 입금계좌: 농협 302-1316-9132-11

예금주: 이선희센스포츠 전국주문전화: 1588-4930 ※카드결제 가능

바지가 편해야 하루가 편하다! 기모원단 장착
클래식 원턱 기모바지 3장 59,800원



기모원단

“우수한 신축성으로
편안하고
기모원단으로
따뜻한 바지”

사이즈
30, 32, 34, 36, 38, 40
바지 3장 ₩59,800
(택배비 3,000원 구매자 부담)

야점산행 후 바로 출근할 수 있는 바지가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출퇴근시에는 정장스타일로 아웃도어 활동시에도 좋은 멀티아웃도어 크로스오버 바지는, 기능성 원단 기모안감을 적용하여 맑은 흡수후 빠르게 건조시키고 쾌적함을 유지시켜주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스관 소재로 정장용·레저용·일상복으로 모두 입을 수 있게 디자인 되어 일반 바지보다 활용성이 뛰어나다. 허리부분에 주름밴딩 장착으로 숨 쉬는 바지 기능을 추가하여 30~70대 남성들에게 두루 인기를 끌고 있다. 세균과 땀 냄새까지 억제하는 바지이다.

www.style49.com 입금계좌: 농협 302-1316-9132-11

예금주: 이선희센스포츠 전국주문전화: 1588-4930 ※카드결제 가능



5도 UP 효과! 히트업 보아 플리스 조끼
보아 플리스 조끼 2장 45,000원

겨울철 체온을 높여주는 워밍 아이템!!
부드러운 감촉으로 추운 한파·칼바람 절대 방어



베이지 차콜 네이비 블랙

겨울에 인기 좋은 보아 플리스 조끼이다. 양면 보아 플리스 소재로 더욱 뛰어난 보온성과 부드러운 감촉을 자랑한다. 간절기에는 단독으로 가볍게 걸치기 좋으며 한겨울엔 아우터안에 레이어드 하여 따뜻하게 착용할 수 있다. 소재 자체의 우수한 텐션감으로 활용성이 뛰어나며 양면 플리스가 따뜻한 일을 풀어주어 한겨울에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올겨울 첫 런칭 기념 행사가로 대폭 할인된 금액 45,000원에 원+원 행사를 하고 있다. 제품의 자신감으로 7일 이내 불만족 시 100% 교환·환불을 보장한다.

사이즈 95, 100, 105, 110 조끼 2장 ₩45,000 (택배비 3,000원 구매자 부담)

www.style49.com 입금계좌: 농협 302-1316-9132-11

예금주: 이선희센스포츠 전국주문전화: 1588-4930 ※카드결제 가능